

김태리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보낸 ‘나희도’ 부러웠죠”

tvN 주말극 ‘스물다섯 스물하나’ 속 ‘나희도’ 그 자체

1998년 시대, 꿈 빼앗긴 청춘들의 방향·성장 드라마

배우 김태리(32)는 tvN 주말극 ‘스물다섯 스물하나’ 속 ‘나희도’ 그 자체였다. 서투르지 만 솔직하고 순수한 청춘을 대변했다. 희도는 자유로운 영혼인 만큼 본능에 끌리는 대로 연기했다. 일부러 톤을 높이거나 낮추지도 않았다.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했는데 희도처럼 느껴졌다”며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절제할 게 없었다고 털어놨다. 서툰이 넘었는데 고등학생 연기는 전혀 이질감이 없었다. 스스로도 “귀여웠다”며 “교복을 입는 것 만으로도 캐릭터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1998년 시대에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향과 성장을 그렸다. 스물둘과 열여덟에 처음으로 서로 이름을 불렀던 ‘나희도(김태리)와 ‘백이진(남주혁)은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돼 사랑했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흥행코드가 비슷했다. 곳곳에 복고풍 소품을 배치해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하고 희도 남편에 관한 궁금증을 높인 점 등이 그랬다.

시청률 10%(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를 넘으며 인기몰이했는데 “그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제작진과 시청률 맞추기를 해 터무니없이 못 맞췄다. 쪽쪽 울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싶었다”며 놀랐다.

김태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2회 전체를 꼽았다. 희도와 이진이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신은 순정만화 한 장면 같았다. 학교 운동장에서 수도꼭지를 분수로 만들어 장난치고 티널로 달려가던 장

면은 설렘을 자아냈다. “정지현 PD님이 투샷으로 끝내고 싶을 정도로 좋다고 하더라. 희도는 반짝반짝 빛나고 나무와 슈퍼 색깔, 여름날의 분위기, 두 사람의 대사, 내레이션까지 좋았다. 이진 대사 중 ‘너는 열여덟살의 나를 보는 것 같다’를 가장 좋아한다. 드라마 ‘네 멋대로 하라’(2002)를 좋아하는데, 2회 엔딩 장면이 비슷한 느낌이었다. 회색으로 씩씩하면서 ‘뽀뽀뽀’ 노래가 나오지 않았느냐. 16회까지 그렇게 끝나길 바랐는데 초반에만 그렇게 했다. 그 때 온도, 습도 모두 엄지척이다.”

극중 희도가 맞춤법을 틀리거나, 만화책 ‘풀하우스’에 코닥지를 붙여놓은 장면 등도 웃음을 줬다. “극본을 보면서 ‘아하하하하’ 소리 내서 웃을 정도로 재미있는 부분이 많았다. 배우들이 잘 살렸다”면서 “소품팀이 만화책 찢어진 부분을 그렸는데 현장에서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놨어?’라며 놀랐다. 소품팀이 센스있고 준비도 열심히 했다. 코닥지 신도 좋아한다. 만화책에 코닥지를 너무 크게 붙여 놔서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고 했다.

김태리는 펜싱선수 역을 맡아 의욕이 넘쳤다. 6개월간 펜싱을 배우면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할 정도다. 근육통에 시달리고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가면 ‘태릉에서 왔느냐’ ‘현역 선수와 몸 상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들었다. “초반에는 일주일에 2번, 하루 2시간 정도 연습했다. 나중에 네 달 정도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매일 가서 자연스럽게 잘하게 됐다”며 “펜싱 노트를 썼는데 처음에는 ‘왜 안될까? 해맨다’고 썼는데, 촬영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8월 초중순에는 ‘움직

임에 필요한 근육이 느껴진다’고 적었다. 운동은 열심히 하면 눈에 보이고 몸으로 바로 느껴지지 않느냐. 성취감이 들어서 좋아한다”고 털어놨다.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통해 배운 점도 많다. 로맨스 코디미는 어떤 매력이고, 드라마는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등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가르침을 얻은 건 에너지 분배”라며 “초반에 현장 분위기가 즐거워서 ‘내일 촬영간다며 신이 나서 눈을 찜는데, 펜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나중에는 쓸 에너지가 없더라. 충전할 시간도 없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 속 에너지를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프랑스어 실력도 수준급이었는데, “이 작품 들어가기 전 프랑스를 배우고 있었다. 조금 수준”이라며 겸손해했다. “불어하는 설정은 몰랐다. 나중에 극본을 받고 화답짜 놀랐지만 난 준비된 사람”이라며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 해 녹음분을 받아서 외우고 교정도 받았다. 선생님이 ‘태리씨 살짝 아쉬운 부분 있었지만 너무 잘했어’라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좋았다”고 귀띔했다.

남주혁(30)과 호흡은 최고였다. ‘어떻게 저렇게 잘 할까?’ 싶었다며 “많이 배웠다. 주혁이와 연기할 생각하면 즐겁고 편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남주혁은 애드리브에 능하며 “평소 어떻게 농담하는 지만 봐도 알 수 있다. 0.1초만에 반응할 만큼 위트있다. 나에게 없는 부분인데, 배우로서 소중한 능력”이라고 칭찬했다. “난 생각을 많이 하고 미리 정해놓는 편이라서 주혁이의 임기응변을 따라갈 수 없다”며 “대단한 친구”라고 극찬했다.

김태리는 희도를 연기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은 생각하지 않았다. “난 희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다”며 “희도의 청춘을 부러워하면서 연기했다”고 돌아봤다. 김태리에게도 ‘청춘’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까.



“마음이 설렘 때는 모두 청춘 같다. 나이 들어도 무언가 하고 싶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설레어하는 모든 순간을 청춘으로 부를 수 있다. 나의 20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내 자신과 싸우고 답을 찾고 잠시 행복했다. 다시 또 고민이 생기면 슬퍼하고 극복하면 또 잠시 행복했다. 희도의 청춘에서 배울 수 없는 게 꿈, 펜싱이다. 나도 하고 싶은 연기하면서 희도만큼 100% 행복한 상태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재미 있다. 어느 순간 ‘힘들다’ 하면서 일상처럼 하면서도 선배들의 빛나는 연기를 보고 뭔가를 깨닫는 이 순간이 청춘 아닐까.”

김태리는 작품을 보는 안목이 남다르다. 2014년 화장품 브랜드 광고모델로 데뷔했으며, 첫 영화인 ‘아가씨’(감독 박찬욱·2016)

가 칸 영화제에 초청 받으며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1987’(감독 장준환·2017) ‘리틀 포레스트’(감독 임순례·2018) ‘승리호’(감독 조성희·2020) 등에서도 활약했다. 드라마 출연작은 ‘미스터 션샤인’(2018)과 스물다섯 스물하나 뿐인데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내가 진짜 작품을 잘 보는 것 같다. 잘 고른다기 보다 직관력이 뛰어나서 극본을 잘 본다. 약간 자부심이 있다(웃음).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나?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 초등학교 때 가정통신문에 본인과 부모님이 희망하는 장래희망을 적는 칸이 있었다.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라고 적은 게 잊혀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는데, 좋은 변명이기도 하다. 그럴 듯한 말을 안 붙여도 되니까.”

정동원, 두번째 동화(棟話) 전국투어 콘서트



다음달 21일과 22일 광주 공연

가수 정동원이 단독 콘서트로 전국 각지의 팬들을 만난다.

정동원의 ‘2nd 정동원 棟話(동화) 전국투어 콘서트(2nd JEONG DONG WON'S TALK & CONCERT)’가 오는 5월부터 개최된다.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는 오는 5월 7일과 8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5월 21일과 22일 광주, 6월 4일과 5일 서울, 6월 18일과 19일 대구 4대 도시에서 진행된다.

전국투어 콘서트의 티켓은 팬카페 선예매, 일반 예매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는 7일 오후 6시에는 부산 공연의 팬카페 선예매, 8일 오후 6시에는 부산 공연의 일반 예매가 인터파크 티켓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스

연애는 환상, 결혼은 현실...이진욱·이연희 ‘결혼백서’



배우 이진욱과 이연희가 예비부부로 입맞춘다.

카카오TV 드라마 ‘결혼백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만 같았던 30대 커플의 결혼준비

총 12부로 매회 30분 안팎 미드폼 드라마

과정을 그린다. 상견례부터 혼수 준비, 신혼집 구하기까지 예비부부들이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를 담는다. 이진욱과 이연희는 2년간 교제 후 결혼을 앞둔 ‘서준형’ ‘김나은’을 연기한다. ‘연애는 환상이고,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처럼 30대 부부의 현실감 넘치는 모습을 예정이다.

준형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사랑 앞에 솔직하다. 여자친구 말이면 무엇이든 들어준다. 풍족하고 화목한 집안 환경, 좋은 대학·직장까지 순탄한 삶을 산다. 때로는 철없어 보이지만

유쾌하고 순수한 성격으로 주변에 사람이 넘친다. 나은은 정교하고 웃음이 많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한다. 가끔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지만, 현실적이고 아무저 사ram 받는다.

이진욱은 “현실적인 연애·결혼 이야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연희는 “오랜만의 드라마 출연이라서 기대되고 설렌다”며 “준형과 나은뿐만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라서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총 12부로 매회 30분 안팎 미드폼 드라마다. 상반기 공개.

김희재, ‘구해줘! 홈즈’ 2년만에 재출격

가수 김희재가 다정다감한 인테리어 조연자로 출격한다.

김희재는 오는 24일 방송하는 MBC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 2년만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가수 활동은 물론 최근 연기 데뷔작인 MBC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 촬영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가운데 ‘구해줘! 홈즈’에 출연하는 김희재는 2년전 첫 출연 당시 세심한 조연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눈길을 끌었다.

당시 양세형과 함께 단독주택 추천에 나선 김희재는 2층의 아담한 발코니를 의뢰인의 반려견을 위한 공간으로 제안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해당 공간에 잔디를 깔아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덧붙이는 등 창의성을 발휘해 찬사를 받은 것.

이처럼 첫 출연 당시 꼼꼼함과 배려심을 겸비한 모습으로 각광받은 그가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희재는 23일 첫방송하는 MBC “지금부터, 쇼타임!”의 이윤영 순경 역으로 연기자로 첫 발을 내딛는다.

“소고기 사주고 싶었다”...김준호·김지민 열애 ‘시그널’

개그맨 김준호(47)와 개그우먼 김지민(38)이 열애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두 사람이 과거 방송에서 서로를 언급한 내용이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김준호·김지민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KBS 공채 개그맨 선후배 사이이자, 같은 소속사 식구인 김준호, 김지민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교제를 시작했다”며 “김준호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김지민 씨의 위로가 큰 힘이 됐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로 관계를 이어오다 얼마 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팬소 절친한 개그계 선후배로 알려진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열애설이 불거졌다. 당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준호가 물라 출신 이상민과 친동생 김미진을 집에 초대해 저녁 식사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준호 집에서 김지민이 직접 문구를 새긴 향초를 만들어 방송국에 팔고 다녔는데 내가 5만 원어치를 사줬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3년 KBS 2TV 예능 ‘이야기쇼 두드림’에서는 과거 김준호가 김지민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지민은 이날 “개그맨 지망생 시절 김준호 선배님이 소고기 사 주면서 조언해 주셨다. 개그우먼이 되고 나서 그 일을 묻자 ‘널 여자로 봤어’라고 답해 실망했다”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과거 김지민은 방송에서 김준호의 훈훈한 미담을 공개했다. 2014년 MBC 예능 ‘세바퀴’에 출연한 김지민은 비키니를 입어야 하는 색시 화보 제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3000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수위가 높아 거절했고, 힘드었던 공백기에 가장 든든한 선배는 바로 김준호였다고. 그는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행사 MC를 맡으며 박나래와 김지민을 보조 MC로 섭외했다. 두 사람은 김준호에게 행사비로 50만 원씩을 받았지만 나중에 전체 행사비가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준호가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몫을 전혀 챙기지 않은 것.

김지민은 2014년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도 김준호를 언급했다. 코미디 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지민은 “김준호 선배님이 항상 돈보다는 사람을 낚기라고 하셨다. 선배님은 사람을 많이 낚으셨다. 저희는 선배님 한 사람 덕분에 흠뻑 젖어지지 않았다. 이 영광을 선배님께 돌린다.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



다. 당시 동업자의 공공 횡령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김준호를 위로하는 말이였다.

2018년 방송된 MBC에브리원 예능 ‘비디오스타’에서는 김준호가 김지민을 유달리 아꼈던 일화가 공개됐다. 김준호는 “예전에 김원효, 양상국, 김지민이 우리 회사 연습생이였다. 개그맨 후배들에게는 주로 산채비빔밥을 사줬는데 김지민을 보는 순간 5만3000원 짜리 소고기를 사주고 싶었다. 김지민만 사줄 수 없어 열명 정도 함께 사줬다”고 털어놓았다.

김준호는 2020년 3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도 김지민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같은 소속사 후배 박나래와 장도연에 대해 “우리 회사 건물을 지어줬다. 좋은 후배고 지금 대세”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김지민에게만큼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덧붙혔다.